

광양시, '숲속의 광양' 만들기 박차

미세먼지 차단숲·생활밀착형 숲 등 탄소중립 지향 그린 뉴딜사업 추진 기후변화 시대 시민 정주환경 개선

광양시는 올해 미세먼지 차단숲과 생활밀착형 숲(정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등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녹색도시 '숲속의 광양' 조성에 속도를 낸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미세먼지 차단숲 24ha 조성을 위해 생활밀착형 숲 10곳과 자녀안심 그린숲 6곳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 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도시 내·외곽 도시숲의 기능 강화, 분산된 녹지 연결 등으로 시민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광양시는 올해 80억원을 들여 2019년부터 2년간 태안동 명당국가산단과 광양읍 익신일반산단 일원에 5.4ha, 옥곡면 신금일반산단과 광양읍 초남제2공단 일원에 3ha 등 총 8ha의 면적에 미세먼

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올해는 산업단지에서 생활권 주변까지 대상지가 확대됨에 따라 3월 개관 예정인 전남도립미술관을 비롯해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맞춰 광양읍 유당공원,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폐선부지 일원, 동천변, 국지도 59호선(반송재-광양경찰서) 일원 7ha에 70억 원을 들여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유당공원에서 전남도립미술관을 거쳐 운전면허시험장, LF 아웃렛, 순천 경계동일터널까지 광양읍권(구) 경전선 폐선부지 약 4km가 녹지축으로 연결된다. 생태하천인 동·서천과 함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될 전망이다.

또 학생들의 자연학습 공간 및 녹색 쉼터 제공을 위해 다압중학교 명상숲(학교숲) 조성에 6000만원, 마동 근린공원 내 녹색 휴식공간 확대를 위한 생활환경숲 조성에 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방문자들이 많은 중마동 커뮤니티센터에 10억 원을 들여 공기정화능력이 탁월한 실내식물을 심고, 자동관수 시스템 및 온·습도조절기 등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 쾌적한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광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사업비 1억8000만원을



주민·단체 참여숲 예정지인 광양 백운제농촌테마공원. <광양시 제공>

들어 산단기업 4곳, 다중이용시설 2곳 등 스마트 가든 6곳을 조성한다. 노후 산업단지의 근로환경 개선과 다중이용시설 방문객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 및 휴식·치유·관상 효과가 기대된다.

광양시는 지난해 9000만원의 사업비로 신금산단, 율촌산단 내 입주기업 3곳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해 산단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 정원자재·정원수공판장 '순천만 가든마켓' 9월 개장



순천시가 연향들 일원에 건립 중인 정원자재판매장 및 정원수공판장의 통합 명칭이 '순천만 가든마켓'으로 확정됐다.

순천시는 '순천만 가든마켓'은 정원산업과 관련된 선진 정원 자재 판매 유통단지과 정원수 유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정원수 공판장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통합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순천만 가든마켓'은 국내 최초의 정원 자재 및 정원수 유통단지로 전남지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순천 정원수 자원을 활용한 정원수 생산·유통시스템의 핵심역할을 할 전망이다.

순천시는 지난해 10월 정원문화산업을 잘 표현하고 순천시를 대표·상징하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정원자재판매장 및 정원수공판장' 통합명칭 공모를 진행했다. 총 257건의 명칭이 접수돼 최종 5건의 당선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작 '순천 가든 마켓'은 순천에서 정원 관련 자재·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계라는 의미로 창의성, 상징성, 대중성, 지역성, 발음 용이성 등 최고점을 받았다.

순천만 가든마켓은 오는 9월 개장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지난해 523명 귀농귀촌인 유치...인구유입 효과 '톡톡'

정주의향→이주준비→실행→ 정착 고령화·인구감소 대응 4단계 지원

구례군은 지난해 416세대 523명의 귀농귀촌인을 유치, 귀농귀촌 정책이 인구 유입 효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귀농귀촌인 중 귀농 비율은 93세대 125명으로 24%, 귀촌은 323세대 398명 76%로 귀촌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군은 이같은 성과에 따라 올해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해 귀농귀촌 정책을 4단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귀농귀촌 단계를 정주의향→이주준비→이주실행→이주정착 4단계로 나눴다.

정주의향 단계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귀농귀촌인 단계다. 이들에게 구례군의 장점을 알리고 각종 지원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유치 행사에 적극 참가할 계획이다.

이주준비 단계는 귀농귀촌을 미리해보는 단계

다. 구례군은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한다.

이주실행 단계는 본격적으로 귀농귀촌을 실시하는 단계다.

이들을 위해 1년간 구례에서 살며 체계적으로 귀농귀촌을 교육하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정착 단계는 귀농귀촌을 완료한 단계로 구례군은 이들에게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 워크숍,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역민과의

융화합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이주준비 단계에서는 일손돕기·영농실습 등 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귀농귀촌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코로나 취업난 뚫은 여수석유화학교 졸업생 52.5% 대기업·공기업 취업

2013년 개교 학비·기숙사비 지원 목표 기업별 취업 프로그램 효과

국내 유일 석유화학 마이스터고인 여수석유화학교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공기업 등에 취업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일반고와는 달리 입시가 아닌 취업을 목표로 3년 간 매진하는 특성화고의 특성상 이번 성과는 더욱 값지다는 평가다.

19일 여수석유화학교등학교에 따르면 올해 졸업 대상자 9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명

(52.5%)이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 취업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돼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여수석유화학교도 상반기에는 7.2% 취업이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석유화학고 교직원들은 전문적인 취업 역량 강화 캠프와 기업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중점 운영, 하반기에 괄목할 만한 취업 성과를 냈다.

삼성전자 공채에서 45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했으며 최종 면접을 거쳐 1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현대오일뱅크 2명, GS칼텍스 4명, 롯데케미칼 3명 등 대기업과 공기업, 전남교육청, 전남도청 등 모두 51명이 취업했다.



여수석유화학교 전경.

이상용 여수석유화학교 교장은 "무분별한 취업 보다는 목표 기업별로 취업 프로그램을 가동해 우수한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

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개교한 여수석유화학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며 학비·기숙사비 등이 지원된다.

/여수=김화희 기자 chkim@kwangju.co.kr

곡성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곡성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험 가입으로 곡성군민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진단 위로금 10만원부터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사고 관련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곡성군 자전거단체보험은 주민등록상 곡성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 관계자는 "사고때 군민들이 보험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지난해 수해로 인해 파손된 자전거도 도로를 조기에 복구해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